

지혜의 말씀

불기 2570년 2월 / 통권 539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악행을 하는 자는
금생에서도 괴롭고
다음생에서도 괴롭고
두 생에서 모두 괴로워 한다.
악행을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 책망하고
지옥에 떨어져 더욱 괴로워한다.

今 悔 後 悔 爲 惡 兩 悔
금 회 후 회 위 악 양 회
厥 爲 自 殘 受 罪 熱 懬
궐 위 자 앙 수 죄 열 뇌

- 법구경 게송 17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영혼과 육신 /운성스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 8

『법구경』 해설-12 / 자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2월 법회 및 행사 · 13

알림마당 · 15

고맙습니다

입춘·삼재소멸기도 안내

천일기도 안내

설날합동차례재 안내

정초기도 안내

제 24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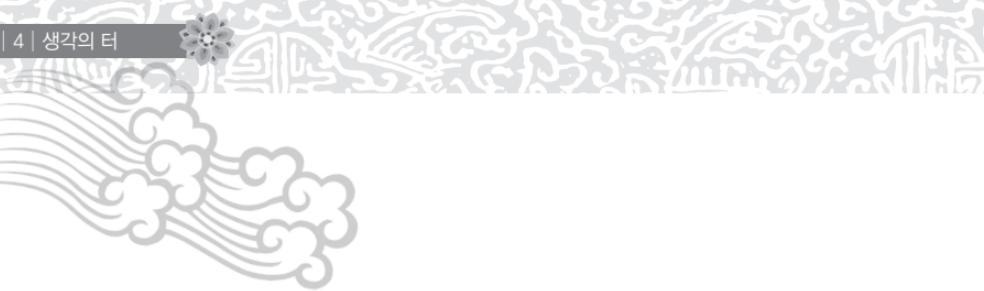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편집장 / 자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인쇄 / 디자인스프링





영혼과 육신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불교의 시각이다. 영혼은 여덟 가지 느낌으로 이루어진 의식의 세계 즉 팔식(八識)으로 보면. 육신은 네 가지 원소(사대(四大))의 흙, 물, 불, 바람 등의 합성체로 본다.

먼저 육신의 구성체인 사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수화풍(地水火風) 즉 흙의 성분. 물의 성분. 불의 성분. 바람의 성분의 네 가지 원소를 말한다. 흙의 성분은 우리 몸의 피부 조직 등을 구성하고. 물의 성분은 우리 몸의 수분을 말하며. 바람의 성분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말하고. 불의 성분은 우리 몸의 온도를 말한다. 이 네 가지 성분의 각각 원소

들이 결합 된 것이 육신이라는 견해다.

네 가지 성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저마다의 알맞은 질량을 잘 유지하면 건강한 육신이 유지 되지만 그중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넘치면 어느 부분이 고장 난다. 이를테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신경성 질환이 생기거나. 뼈가 골다공증을 일으키거나. 몸이 차가워져서 고통에 빠져들게 된다.

알맞은 질량의 유지로 인한 건강함 몸은 알맞은 음식 섭취에서 가능하며. 건강을 위한 알맞은 운동으로 활력을 잃지 않게 하거나. 좋은 업을 지어서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 건강한 유전자를 받음으로 해서 가능하다.

다음으로 영혼의 구성체인 마음에 대해 살펴보면 여섯 가지 감지 기관인 눈. 귀. 코. 입. 촉감. 감정. 등 여섯 의식(이를 '제 육식'이라 한다.)과 여섯 느낌을 저장해서 생활 습관을 만드는 형성체인 제 칠식과. 종합 판단 의식인 제 팔식(이를 심의식(心意識)이라 하기도 한다.)을 도합해서 영혼이라 한다.

육신의 건강은 이 시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간이다. 건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고장나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지면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나 육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물에 불과하다. 영혼이라는 다른 이름인 마음이 하나하나 조절하여 이



끌지 않으면 안 된다.

음식량을 적당히 조절해서 몸의 각 부분에 알맞은 영양분이 공급되게 해야 비만이 되거나 허약한 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매일매일 게으름을 물리치며 알맞게 운동하는 노력을 기우리지 않으면 몸이 활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억지로라도 운동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몸에게 명령하기 때문이다. 더 먹고 싶지만 과감하게 숟가락을 놓게 해서 음식을 알맞게 섭취하도록 하는 것도 마음의 과감한 명령 때문이다.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심체이긴 하지만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 마치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으면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는 거와 같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 관심의 대상인 '무인 자동차'라 해도 기본 기능을 입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이 몸도 마음이라는 조정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계에 불과하다.

7세기에서 8세기를 살다 가신 '신찬'이란 스님께서 이런 계송을 남기셨다.

『사대가 흩어지는 것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일이다.

눈. 귀. 코. 입. 감촉. 느낌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만약 부처님 거룩하신 깨우치심의 근본을 알려고 하면
저녁 해는 서산에 지고 아침 해는 동녘에서 뜬다.』

이 계송은 동북아의 모든 절에서 매일 염송하는 계송이다.

맑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정신을 갖추고. 부지
런한 노력과 활기찬 노력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하겠지
만 삶에 집착하거나 애착을 일으켜 생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집착이나 애착은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법구경』 해설 - 12

데바닷따 이야기

자경스님 / 대광사 주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언제나 승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당신의 4촌 동생 데바닷타에 관하여 하신 이야기다.

어느 때 데바닷따 비구는 부처님과 함께 꼬삼비 지방의 한 정사(精舍)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나큰 존경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께 질투심을 느꼈다.

그 후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의 죽림정사에서 많은 대중에게 설법하고 계실 때, 그는 그 나라의 태자 ‘아사세’와 의기가 투합하여 한껏 힘을 얻어 부처님께 노골적으로 교단을 맡겨달라고 제안을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제안이 열토당토않은 것이라고 심한 어조로 꾸짖으셨다. 이에 대해 데바닷따는 수치심을 느끼고 언젠가는 부처님께 복수하겠다며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리하여 그는 세 번씩이나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다. 첫 번째는 자객을 보내어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지만, 자객은 부처님께 들키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감동하여 제자가 되어 버렸다. 두 번째는 왕사성의 근방에 있는 영취산에 올라가 부처님께서 턱발을 끝내시고 돌아오는 때를 기다려 산 위에서 큰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헤치려고 했는데, 다행히 바위는 다른 쪽으로 굴러갔으나 파편이 튀어 부처님의 오른쪽 발가락에 상처를 입히었다.

세 번째는 사나운 코끼리 ‘날라기리’에게 술을 먹여서 흥분하게 만든 다음 부처님과 비구 일행을 향해 돌진하게 했다. 이때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부처님을 지켜야겠다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코끼리를 막아섰다. 그러나 그럴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이르자 부처님의 자비 삼매에 조복되어 조용히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데바닷따는 끊임없이 부처님의 교단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마침내 부처님께 대항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계율인 오사(五事)를 제시한다.

데바닷따의 5사(事)란, “① 유락을 먹지 않는다. – 그것은 송아지를 굶게 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 ② 물고기와 짐승의 살코기를 먹지 않는다. – 그것은 중생의 목숨을 끊기 때문에 죄가 된다. ③ 걸식만을 한다. – 공양의 초대를 받아 신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죄가 된다. ④ 옷은 분소의만을 입는다. – 재가신도로부터 옷을 얻어 입는 것은 죄가 된다. ⑤ 나무 밑에서만 잔다. 지붕 밑에서 거처하면 죄가 된다.”



는 것이다.

얼핏 범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사(五事)의 내용은 수행자가 지켜야할 진정한 덕목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른데 한결같이 받아 지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자가 원칙적으로는 사의법(四依法)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지만, 거기에 꼭 얹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신 것이다. 전통적인 사의법에 많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생활하도록 조치하셨다. 이러한 부처님의 생활태도는 중도 사상(中道思想)에서 나온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엄격한 계율로 규정하여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지키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때 데바닷타는 아직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구들 중 자신의 제안에 찬동한 어리석은 비구 500인을 데리고 봇다가야와 왕사성의 중간쯤에 있는 가야산에 들어가 별도로 승단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건련을 그곳에 보내 그들이 데바닷따의 그릇된 수행에 물들기 전에 교화하여 데려오도록 하시었다. 그렇게 해서 가야산의 데바닷따 승단에 사리불과 목건련이 당도하자 데바닷따는 그들이 그를 추종하여 온 줄 알고 기뻐 어쩔 줄을 모른 채 그의 젊은 추종자들에게 “너희들은 돌아보라. 고타마의 양팔이라는 두 제자도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바닷따는 부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리불에게



말했다.

“나는 피곤하도다. 그대가 내 대신 이 비구들에게 설법하여라.”고 말한 뒤 그는 그럴듯한 자세로 누웠지만, 곧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다. 이때 사리불은 젊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며 그대들을 구해오라 하시었다. 너희들은 어서 너희의 어리석음을 참회하여라.”

이렇게 해서 젊은 비구 모두를 데리고 부처님 회상에 돌아왔다.

얼마 뒤 잠에서 깨어난 데바닷따는 그의 제자들이 모두 떠난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분노에 찬 뜨거운 피를 토해 냈다.

이후 데바닷따는 중병에 걸렸고, 그는 병으로 인해 아홉 달을 앓아누워 있으면서 한사코 부처님을 뵙고자 애원했다. 그래서 그를 간병하던 제자들이 하는 수 없이 병든 그를 둘러메고 기원정사로 향했다. 이 소식은 부처님께도 전해졌는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데바닷따는 결코 여래를 볼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데바닷따가 탄 가마가 기원정사 근처의 한 연못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마에 내려 잠시 몸을 씻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발을 내려 땅에 딛자마자 땅이 두 갈래로 갈라졌고, 그는 땅속으로 빨려들고 말았다. 그는 그대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생전에 저지른 갖은 악행에 합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부처님께서는 표지의 게송을 읊으시었다.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대광사 2월 법회 및 행사

- ◆ 2월 2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2월 2일 : 입춘·삼재소멸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2월 4일 : 입춘·삼재소멸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2월 4일 : 천일기도 400일 회향
- ◆ 2월 5일 : 천일기도 500일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2월 17일 : 설날합동차례재 오전 7시 설법전
- ◆ 2월 19일 : 정초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2월 23일 : 정초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 2월 28일 : 삼보사찰 순례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 055-545-9595

입춘·삼재소멸기도

- 2월 2일~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눌삼재 : 돼지, 토끼, 양
- 동참금 : 입춘 3만원 / 삼재 1인-2만원



대광후원회

(2025.12.19.~2026.1.19.)

황두관 1만원	박정진 1만원	이우권 3만원	차재원 5만원
이순남 1만원	변창인 2만원	구자민 3만원	정대식 5만원
정진이 1만원	김병문 2만원	김태희 3만원	이미경 5만원
박미애 1만원	박종호 2만원	박미정 3만원	박진호 10만원
송성수 1만원	홍승운 2만원	정연수 3만원	고춘지 30만원
이경화 1만원	이인숙 2만원	김주원 5만원	카텍홀딩스 30만원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9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지혜의말씀 후원(2025.12.19.~2026.1.19.)

주정수 82,820원 / 김종열 5만원 / 홍기준 1만원 / 양재봉 1만원 / 송민기 1만원

조홍준 1만원

♥ 설담장학회(2025.12.19.~2026.1.19.)

주지스님 10만원 / 구명희 50만원 / 신애란 10만원 / 정성준 5만원 / 김승화 5만원

이봉희 5만원 / 김세훈 5만원 / 김단우 3만원 / 제영길 3만원 / 진병천 3만원

이경화 3만원 / 박임선 2만원 / 구자민 2만원 / 김태희 2만원 / 변지오 2만원

박호도 2만원 / 이순남 1만원 / 조홍준 1만원



천일기도

- 400일 회향: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500일 입재: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설날합동차례재

- 2월 17일 오전 7시 설법전
- 영가 1위 2만원

정초기도

- 입재: 2월 19일 오전 10시 설법전
- 회향: 2월 23일 오전 10시 설법전
- 동참금: 5만원

진해대광사 반야찬불단 / 시라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매주 목요일
- 반야찬불단: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종무소 545-9595



佛紀 2570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4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편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6년 02월 중순 ~ 03월 중순(매주 화, 수)	2026. 03월 중순(화) ~ 12. 중순(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26년 3월 중순 예정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2월 중순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포함)
불교대학 1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법복 포함)
불교대학 2학기 20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총 45만원(학기별 납부가능)
불대계좌 : 수협 921-61-001749 대광사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biriya@hanmail.net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21세기대광사